

### 수장 없는 중기부 산하기관들

# 길어진 공백기에 총선만 ‘오매불망’

옴부즈만, 창진원, 벤처투자 등 대표·위원장·감사 자리 비어있어 총선 이후 올 기관장 ‘예의주시’ 관련 업무 정통한 실력자 바라

수장들이 떠나 자리가 비어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수도북한가운데 이들 기관이 4월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임 기관장들이 임기를 한참 남겨놓고 그만뒀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총선이나 끝나야 고배를 마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빈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장 자리엔 여당 출신 정치인이 오거나, 아니면 비정치인이라도 현 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쓴 개국공신들로 채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원장, 한국벤처투자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공석이다. 한국벤처투자와 공영홍수평은 감사 자리도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부문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부터 공석이다. 전임 박주봉 옴부즈만이 5년 6개월간 옴부즈만 활동을 하다 퇴임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전임 이영 장관 시절 옴부즈만 자리를 놓고 공모를 진행, 후보까지 3배수로 추렸지만 오영주 장관 취임

후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일단 옴부즈만 없이 3월 말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듣는 ‘S.O.S Talk’를 올해 17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네 차례의 소상공인 간담회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대주중공업 회장인 박주봉 전 옴부즈만은 지난달부터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스타트업 지원, 창업 촉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창업진흥원도 지난 2월 초부터 원장 자리가 비었다.

다만 창진원은 업무 성격이나 기존 기관장들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출신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기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도 현재 공석이다. 오동윤 전 원장은 당초 5월까지 임기였지만 앞서 2월 말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고 대학교로 돌아갔다. 오 전 원장은 동아대 경제학과에서 이번 학기부터 무역이론, 기업정책, 경제발전 등을 가르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는 유용환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한 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등을 두루 거친 반도체 전문가인 유 전 대표는 19대 대선 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20대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각각 몸담은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3년 임기인 한국벤처투자

대표 자리를 1년 2개월 밖에 채우질 못했다. 한국벤처투자는 감사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중진공이 현재 공모하고 있는 글로벌 상임이사 자리는 선례를 볼 때 정치권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A이사 역시 정치권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오영교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새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임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무총리 출신인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동반위는 이후 주로 장관급이 수장을 맡았다. 6번째 위원장인 오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곳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정권 출신 인물들이 서서히 빠져 총선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모든 기관들이 총선 이후에 올 기관장들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면서 “힘이 썩어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력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기관의 속내다. 자칫 색깔이 맞지 않는 애매한 인물이나 전문성도 없이 (정치권)출만 믿고 와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치거나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사 등과 관련해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 등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코웨이, 렌탈료 반값 등 역대급 혜택

5월31일까지 ‘코웨이페스타’ 진행

코웨이가 5월31일까지 역대급 혜택을 담은 ‘코웨이페스타’를 진행한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페스타’는 코웨이 매장, 코웨이닷컴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코웨이는 행사 기간 동안 코웨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렌탈료 할인, 경품 증정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에서는 코웨이 최초로 주요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의 렌탈료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론 정수기2, 아이론 얼음정수기, 비렉스 안마베드 등 코웨이 베스트셀러 17개 제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렌



탈 구매할 수 있다.

이사와 결혼 시즌에 맞춰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특별 패키지 기획전도 마련했다.

아이론 정수기2와 프라임 비데 또는 아이론 얼음정수기와 싱글과워 공기청정기 등 행사 제품을 세트 렌탈하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렌탈료의 15%를 추가로 할인한다. /김승호 기자



FTA 발효 20주년 기념 ‘FTA 2.0 세미나’

고광호(앞줄 가운데) 관세청장과 국외 59개국 FTA 담당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 ‘FTA 2.0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 SK매직, 초소형 직수 정수기 1.5만대 판매

출시 한 달 만에 성과

SK매직이 지난 2월 출시한 신제품 ‘초소형 직수 정수기’ (사진)가 한달 만에 1만5000대가 넘게 팔리며 인기다.

2일 SK매직에 따르면 초소형 직수 정수기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SK매직은 주문이 기대 이상 폭증하자 경기 화성공장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밀려드는 고객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SK매직은 초소형 직수 정수기의 흥



행 요인을 고객 니즈를 반영해 기존 직수 정수기 대비 60% 로 크기를 줄인 초소형 사이즈로 꼽았다. 한 뼘 크기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슬림해 좁게 느껴지는 주방 공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실제 출시 이후, 신규 고객뿐 아니라 제품 부피에 부담을 느꼈던 기존 정수기 사용자의 교체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33%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中企 자금조달 애로 집중지원”

‘中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납품 계약 후 겪는 문제 해소 올해 1000억 규모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후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은 생산 리드타임(제품 수주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원부자재 구매대금 등 생산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금리·대출한도 제한 문제에 직면해 단기 자금조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집중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

론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발주기업이 추천한 협력 수주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까지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인 수주 중소기업은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조기업은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주기업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결제조건, 자금사정을 고려해 수·발주기업 합의 하에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생산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췄으며, 납품 후에는 발주기업이 상환 의무를 지므로 수주기업은 자금 운용이 자유롭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원절차를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금 신청 후 대출까지 5영업일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이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에 수월하게 확보해 원활한 생산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 단위 공급망 강화와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러,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이나·美 연관성 조사 /사진 뉴시스
- ▲리비아 해안에서 1주간 불법이민 480명 구조

- ▲‘1900만원 롤렉스 시계’ 스캔들…페루 대통령, 검찰 소환
- ▲한미일 북핵대표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도발 주시”



- ▲美·日, 정상회담 성명에 ‘반도체 조달 협력’ 명시키로…“中 의존도 완화”
- ▲‘190만명 팔로워’ 유튜버, 베네수엘라 모국서 테러 혐의로 체포 /사진 뉴시스